

공군, 민간전문가 구성 '병영혁신자문위원회' 발족



공군은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변화와 혁신을 위해 민간전문위원으로 구성된 '공군 병영혁신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키고, 8월 6일 서울 공군호텔에서 위촉식과 함께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에 출범한 공군 병영혁신자문위원회는 '인권 보호' '성폭력 예방' '병영 생활 개선'의 3개 분야로 조직됐다. 학계·인권단

체·언론 등 각계각층 전문가 11명이 참여하며, 위원장은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가 맡았다.

공군 병영혁신자문위원회는 정책자문기구로서 향후 공군참모총장 주관 격월 정기회의와 분과별 수시회의를 열어 병영혁신과제를 점검하고 다양한 의견을 공군에 전달할 계획이다.//

15비, 무사고 비행 39년 대기록

공군 15특수임무비행단은 8월 13일 "예하 2348대대가 1982년 이래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해 무사고 비행 39년이라는 금자탑을 세웠다"며 "이를 기념하는 비행 안전 시상식을 지난 8월 11일 공중기동정찰사령관 주관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C-130 항공기를 운영하는 2348대대는 특수부대 합동작전, 해외 파병부대 공수, 육·해상 조난자 탐색구조·환자공수, 해외 긴급재난 공수 등의 임무를 맡고 있다.

베트남전쟁, 걸프전, 아프가니스탄·이라크자유작전 등에서 해외 파병부대를 지원했다.



2004년 인도양 지진·해일, 2008년 중국 쓰촨성 대지진, 2011년 일본 대지진 당시에는 긴급 재난공수작전을 펼쳤다.

최근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백신 항공수송 작전, 동티모르·필리핀 마스크 해외 공수작전을 전개했다.//

공군역사기록관리단, "6·25전쟁 미 공군 항공전사" 발간

공군은 8월 25일 "6·25전쟁 승리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항공력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공군역사기록관리단이 최근 '6·25전쟁 미 공군 항공전사'(사진)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책은 미국 역사가 로버트 F. 퍼트렐(Robert F. Futrell)이 저술한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의 번역본이다. 6·25전쟁 발발부터 정전협정 체결까지 미 공군의 항공작전이 전황에 미친 영향과 활약을 상세히 기록했다. 당시 미 육군에서 갓 독립한 미 공군은 아무런 준비 없이 6·25전쟁에 참전했지만 막강한 항공력을 바탕으로 개전 초기부터 한반도 제공권을 장악했다. 수송·후송·정보 임무는 물론 전략폭격·항공차단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1전비, 전환 및 CRT 수료식

영공 수호 최일선에서 활약할 전투조종사가 탄생했다. 공군1전투비행단은 7월 22일 20-3차 전환 및 작전가능훈련(CRT) 수료식을 진행하고 5명의 신예 전투조종사를 배출했다.

전환 및 작전가능훈련은 고등비행교육을 마친 조종사들이 일선 전투비행대에서 임무를 수행하기 전 해당 기종으로 사전 훈련하는 과정이다.

이날 수료한 전투조종사들은 지난 1월부터 약 30주간 F-5E/F 항공기로 공대공·



공대지 사격 등 실전적인 전투 기량을 연마했다. 이날 수료식 이후에는 실전 배치돼 F-5 조종사로서 본격적으로 임무를 수행한다.//

10전비 153대대, 6만시간 무사고 비행

공군10전투비행단(10전비) 153전투비행대대(153대대)가 기본과 원칙을 준수한 항공작전으로 무사고 비행 6만 시간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했다.

10전비는 8월 19일 "153대대 공병돈(중령) 대대장과 박종현(소령) 4편대장이 탑승한 F-4E 전투기가 18일 오후 임무를 마치고 착륙해 무사고 비행 6만 시간을 이뤄냈다"며 "이 같은 성과는 모든 부대원이 비행 안전에 최선을 다한 쾌거"라고 전했다.

153대대의 기록은 지난 2001년 10월부터 현재까지 19년 10개월에 걸쳐 완성됐다. 거리로 환산하면 약 3800km이며, 2018년 3월 무사고 비행 5만 시간 기록을 세운



이후 3년 5개월 만이다.

1979년 창설한 153대대는 F-4E 전투기를 운용하며 기본과 원칙에 입각한 안전관리에 심혈을 기울였다.//

11전비 110비행대대, 10만시간 무사고 비행

공군11전투비행단 110전투비행대대(110대대)가 8월 4일 무사고 비행기록 10만 시간을 달성했다.

지난 1992년 12월 10일 시작해 약 28년 8개월에 이뤄낸 성과다. 110대대는 1966년 수원기지에서 F-5 기종으로 창설했다.

지금의 대구기지로는 1972년 이동했고, 이때 F-4D 기종으로 전환해 2007년까지 운용했다. 이후 2010년 F-15K 대대로 재창설했으며, 현재까지 단 한 건의 사고 없이 영공을 수호하고 있다.

110대대는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라는 기치 아래 국내외 주요 작전과 각종 연



합·합동 훈련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또 국군의 날 등 여러 국가 행사에서 고도의 기량을 뽐내 국민의 신뢰를 얻었다.//

18전비 105비행대대, 3만 시간 무사고 비행

공군18전투비행단(18전비) 105전투비행대대(105대대)가 3만 시간 무사고 비행 기록을 수립해 관련 유공자들이 표창을 받았다.

18전비는 8월 27일 "공군의 장기 운용 항공기인 F-5E/F를 운용하는 105대대가 3만 시간 무사고 비행기록을 달성했다"며 "이 같은 성과는 기본과 원칙에 입각한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를 바탕으로 조종사들의 투철한 의식, 정비사들의 완벽한 지원이 만든 열매"라고 전했다.



이번 기록은 지난 2010년 6월 19일부터 11년여에 걸쳐 완성됐다.//

2021 서울안보대화

세계 각국의 국방 관료와 민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제 안보협력 방안을 논의한 '2021 서울안보대화(SDD)'가 9월8일부터 10일까지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개최됐다. 10회째를 맞은 올해 SDD에서는 국제사회 이목이 집중된 한반도 이슈를 포함해 아시아·태평양 안보, 신종 감염병, 사이버 위협, 우주 안보위협 등 글로벌 안보 현안을 폭넓게 다뤘다. 이를 통해 국제 안보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1.5 트랙의 장'과 국방 분야를 대표하는 '다자 협력 플랫폼'으로서 SDD 위상을 재확인했다. 더불어 새로운 안보 현안으로 떠오른



기후 변화와 우주 안보위협 이슈가 처음으로 주요 의제로 선정돼 행사의 '격'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경 없는 안보위기와 다자적 대응'이라는 대주제 아래 열린 이번 SDD는 3개 본회의와 3개 특별세션, 특별대담 등으로 구성됐다.//

'국방비전 2050' 발간

국방과 관련된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구상에서 국방부는 중점적으로 추진할 다섯 가지 목표를 설정했다.

먼저 국방부는 국방정책과 군사전략, 미래 작전수행개념 발전에 힘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따른 우리 군의 모습을 담은 '국방 비전 2050'을 7월 28일 발간했다고 발표하고, '국방기본정책서'를 '국방전략서'로 개정해 한반도와 지역의 안보환경에 대한 분석과 대응 방향을 제시하기로 했다. 또 합동참모본부는 미래 전쟁 양상 변화에 대비해 인공지능(AI) 기반의 무인전투체계를 적용하고, 사이버·우주·전자전 등 새로운 전장 영역까지 확장한 합동작전 개념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미래 국방혁신 구상' 5개 목표 ①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유동성에 대비하



고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국방 전략 및 작전수행개념 발전 ②드론·로봇의 무인전투체계 전력화를 가속화하고, AI를 국방 전 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노력 ③민간의 신기술을 군에 신속히 접목하고, 군의 소요를 민간의 연구개발에 적기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④국방부 조직개편 및 국방기획관리체계 보완 ⑤미래 전략환경과 국방과학기술 혁신에 대한 국방 리더십 인식 제고.//

6·25전사자 유해 68구, 고국으로 귀환

6·25전쟁의 영웅들, 국군 전사자 유해 68구가 고국으로 귀환했다. 9월22일 오후 (현지 시간)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의 히카姆 공군기지 19격납고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 관으로 '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이 열렸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6·25전쟁 전사자 유해 인수식을 해외에서 직접 주관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고국의 품에 안긴 국군 전사자 유해 68구는 유엔총회 참석을 포함한 3박 5일간 순방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오른 문 대통령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왔다.

68구 유해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고 김석주·정환조 일병 유해는 대통령 전용기에, 신원 확인이 되지 않은 66구는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 시그너스(KC-330)에 탑승했다.

한편 이번에 봉환하는 국군 유해 68구를 포함해 2012년 이후 현재까지 총 307구의 유해가 조국으로 돌아왔다. 이 가운데 16명의 신원이 최종 확인됐다. 미군 유해는 총 25구가 미국으로 돌아갔다.//

한미, 하반기 연합지휘소 훈련

한미 군당국은 "한미동맹은 코로나19 상황, 연합방위태세 유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 지원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1년 하반기 연합지휘소훈련을 8월16일부터 9일간 시행 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번 훈련은 연례적으로 실시해 온 방어적 성격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위주의 지휘소훈련"이었고,

"실제 기동훈련은 없었으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엄격한 방역지침을 적용한 가운데 훈련 장소를 분산하고 필수 인원만 참가해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훈련 기간 중 양국이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의 진전을 유지하기 위해, 훈련의 일부는 완전운용능력(FOC) 조건 아래에서 시행됐다"고 강조했다.//

광복절 경축식

문재인 대통령은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8월15일 오전 서울 중구 '문화역서울 284'(구 서울역사)에서 열린 제76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고려해 참석 범위를 20여명으로 축소해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5부 요인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및 종교계 인사들이 주로 참석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경축식 주제는 '길이 보전하세다. 일제강점기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으로 나라를 되찾기 위해 노력했던 선조와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이어받

아 '길이 보전'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다.

또 선조들이 이뤄낸 독립의 터 위에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거쳐 선진국 지위로 격상된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 높이고 선도국가 대한민국을 '길이 보전'해 나아갈 것을 다짐하는 의미도 모두 내포했다.//

'SLBM 잠수함 발사' 세계 7번째로 성공

우리 군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잠수함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SLBM 발사에 성공한 국가가 됐다. 국방과학연구소(ADD)는 9월15일 오후 "ADD 종합시험장에서 국내 최초로 SLBM 잠수함 발사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며 "그동안 SLBM 잠수함 발사에 성공한 국가는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인도 등 6개국뿐"이라고 밝혔다. 이날 SLBM은 국내 기술로 건조한 첫 번째 3000톤급 잠수함 '도산안장



호함'에 탑재돼 수중에서 발사됐으며, 태풍이 접근하는 악기상 속에서도 목표지점에 명중했다.//

국방부 6·25전쟁서 전사한 중국군 유해 109구 송환

6·25전쟁에서 전사한 중국군 유해 109구가 고국으로 돌아갔다.

국방부는 8월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제8차 중국군 유해 인도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박재민 국방부 차관과 창정귀(常正國) 중국 퇴역군인사무부 부부장이 대표로 참석했다.



국방부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 군이 발굴한 중국군 유해 109구를 중국에 인도했다. 이번에 인도한 유해 가운데 98구는 강원도 철원군 비무장지대(DMZ) 화살머리고지에서 발굴했다.

한·중은 국제법과 인도주의 정신을 존중

하겠다는 공동 인식을 바탕으로 2014년부터 매년 중국군 유해 인도식을 열고 있다. 현재까지 7차례에 걸쳐 716구의 중국군 유해를 송환했다.//

역사성 지닌 태극기 3점 보물된다

문화재청은 제76주년 광복절을 앞둔 8월12일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등록문화재인 '대니 태극기' '김구 서명문 태극기' '서울 진관사 태극기'를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태극기가 보물로 지정 예고되는 처음이다.

이 태극기는 고종이 1890년쯤 데니에게 사했다고 전하며, 데니의 후손이 1981년 우리나라에 기증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소장 중이다. 김구 서명문 태극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위원회 김구 주석이 1941년 3월 16일 글을 적어 벨기에 신부 매우사(梅雨絲·본명 샤를 미우스)에게 준 유물이다.

태극기는 1882년에 만들어졌다고 알려졌다. 고종은 이듬해 3월 6일 전국에 태극기 사용을 선포했는데, 당시에는 상세한 규격 등을 정하지 않아 다양한 형태의 태극기가 제작됐다. 데니 태극기는 미국인 오웬 니커슨 데니(1838~1900) 소장품이었다. 데니는 중국 상하이 주재 미국영사를 지낸 뒤 1886년 조선 정부의 외교·내무 담당 고문으로 부임했고, 1891년 1월 조선을 떠났다.

김구는 태극기에 "원수 일본을 타도하고 조국의 독립을 완성하자"고 쓰고, 마지막에 김구(金九)라고 새긴 작은 도장을 찍었다.은평구 북한산 기슭의 비구니 사찰인 진관사에 있는 태극기는 2009년 5월 사찰 부속 건물인 칠성각 보수 공사 중에 불단 안쪽 벽체에서 나왔다. 발견 당시 '경교문' '조선독립신문' '자유신보' 등 독립신문류 5종 19점이 태극기 안에서 확인됐다.//

홍범도 장군 유해 안장식

항일 무장투쟁을 이끈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이 8월18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영원한 안식에 들었다.

제76주년 광복절인 8월15일 카자흐스탄에서 봉환된 홍 장군의 유해는 이날 오전 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제3묘역에 안장됐다. 옛 소련의 중앙아시아 강제 이주 정책으로 카자흐스탄으로 이주하고, 1943년 별세한 지 78년 만이다. 앞서 홍 장군의 유해는 8월 16일과 17일 대전현충원 현충관에 임시 안치돼 국민 추모 기간을 거쳤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안장식 추모사에서



“선조들의 고난을 뒤돌아보며 보란 듯이 잘 사는 나라,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강한 나라, 국제사회에서 존중받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주 싱크탱크’ 우주정책연구센터 설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우주 정책을 종합 지원하기 위한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내 설치하고 초대 센터장에 전 STEPI 원장인 조황희 박사를 선정했다고 7월20일 밝혔다.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는 외교·안보·산업과 관련한 우주 개발 이슈와 이를 둘러싼 각국의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현재 선진국들은 국가 우주 전략·정책 수립을 위해 전문가 집단을 별도로 구성해 운영 중이다.

미국 우주안보재단(SWF), 일본 일본우주포럼(JSF), 프랑스 전략연구재단(FRS) 등이 대표적이다.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는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등 정부의 주요 우주개발 계획의 수립을 지원하고, 민간에서 필요로 하는 우주산업 육성 전략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에는 STEPI뿐만 아니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내 우주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제대군인 4차 산업혁명 사이버연수원’ 오픈

국가보훈처(보훈처)는 8월1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중·장기 제대군인의 취업역량을 높이기 위해 제대군인 4차 산업혁명 사이버연수원”을 8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이버연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가속화됨에 따라 변화하는 고용환경에 대비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제대군인의 취업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보훈처가 추진한 교육사업이다. 그동안 중·장기 제대군인들은 전역 후 4차 산업혁명 분야 등의 취업에 불안감을 느껴 보훈처 제대군인지원센터에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보훈처는 사이버연수원을 개설해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스마트 제조,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드(CLOUD), 정보보안, 블록체인,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핀테크, 무인이동체 등 9개 분야 216개 과정을 수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 가능 대상은 5년 이상 군에 복무한 제대군인(예정자 포함)으로서 제대군인지원센터(www.vnet.go.kr) 회원 가입자다.

희망자는 사이버연수원 누리집(http://vnet.winzday.co.kr)에 접속한 뒤 관심 분야 강좌를 개별 수준에 맞게 선택·수강하면 된다. 수강은 모바일로도 가능하다. 보훈처는 제대군인 직업훈련 관련 규정을 개정해 그동안 현역의 경우 3년 이내 전역 예정자까지 수강할 수 있던 것을 5년 이상 군복무 중인 자로서 각 군의 교육대상자로 통보된 자로 확대했다.//

전몰·순직군경 자녀 보상금 지급 기간 ‘만 19세 → 만 25세’

국가보훈처는 8월5일 부모가 모두 사망한 전몰·순직군경 자녀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만 25세 미만으로 높이는 등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전몰·순직군경 자녀는 만 19세가 되면 보상금 지급이 종료됐다. 하지만 최근 천안함 전사자인 고(故) 정종욱 상사의 부인 정경옥 씨가 사망하면서 남겨진 고등학교 1학년 아들의 안타까운 소식이 알려지면서 제도개선과 지원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보훈처는 이에 따라 전몰·순직군경 자녀가 온전

히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몰·순직군경 등 자녀 지원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에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높이는 것과 함께 만 25세 미만 전몰·순직군경 자녀에게 매년 23만6000원의 학습보조비를 지급하고 대학원에 들어가면 만 34세까지 장학금(학기당 115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취업지원 우선순위가 3순위에서 2순위로 올랐다. 19세 미만 대상자에게는 주 1회 밀반찬 제공 등 식생활 지원도 이뤄진다.//

10월 1일은 ‘한미동맹의 날’

주한미군전우회는 매년 10월 1일을 ‘한미동맹의 날’로 지정했다고 9월27일 밝혔다. 한미연합사령관 출신인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전우회회장(예비역 대장)은 이날 공개한 기념일 발표 연설에서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도모한 한미상호방

위조약이 맺어진 1953년 10월 1일을 기념해 지정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의 날은 한미동맹과 한미동맹을 위해 헌신한 참전용사·예비역 장병들을 기억하고, 한국과 미국 국민의 단합을 이끌어 내기 위한 기념일”이라고 덧붙였다.//

한미동맹 발전 공로자 기리는 ‘아너스상’ 만든다

한미동맹재단(KUSAF)과 주한미군전우회(KDVA)는 8월25일 “한미동맹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이들에게 감사를 전하기 위해 ‘아너스(HONORS)상’을 제정·시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수상 부문은 한미 현역·예비역 장병과 민간인 등 총 6명이다. 수상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주한미군전우회 회원이어야 하지만 우리 군 현역 장병은 회원이 아니어도 추천이 가능하다. 후보자 추천은 9월 30일까지 진행되었으며, 한미동맹

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는 접수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공적을 고려해 수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수상자는 후원단체·기관으로부터 5000달러의 상금을 받으며, 상금은 수상자가 희망하는 단체·기관에 본인·후원자 이름으로 기부된다. 후보자 추천과 시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미동맹재단(www.kusaf.org)과 주한미군전우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방우주 분야 싱크탱크’ 한국국방우주학회 창립

국방우주 분야 저변을 확대하는 데 필요한 학술 연구와 정책개발, 군·산·학·연 협력 창구 역할을 수행할 한국국방우주학회(학회)가 8월17일 출범했다. 학회는 이날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공동회장에는 김용우 전(前) 육군참모총장, 이왕근 전 공군참모총장, 정한범 국방대 국방정책연구소장이 선출됐다.

학회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우주개발 조

직과 제도를 재정비하며 우주산업화와 우주안보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오랜 기간 국가안보에 헌신해 온 군·산·학·연 우주 분야 전문가들이 뜻을 모아 학회를 창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학회는 9월 창립세미나를 시작으로 학술회의와 연구·용역사업을 하고 국방우주 분야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외연을 넓힐 계획이다.//

보훈처, 국민과 함께 하는 ‘제대군인주간’ 행사

국가보훈처가 10월5일부터 8일까지 나흘간 ‘2021년 제대군인주간’ 행사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했다. 보훈처는 “매년 10월 둘째 주에 열리는 제대군인주간이 올해로 10회째가 됐다”며 “올해는 제대군인을 향한 존경과 감사, 그리고 제대군인의 새로운 역량 개발 등의 의미를 담아 ‘리스펙 제대군인’으로 표어를 정해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2021년 제대군인주간에는 ‘제대군인주간 기념식’을 비롯해 다양한 행사가 실시됐다.



중·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2021년 구인·구직 만남의 날(두드림의 날·Do-Dream-Day)’을 10월 8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전국 10개 제대군인센터의 소규모 구인·구직행사를 통합한 것으로 100여 개 기업이 동참했다.//

ADD, 스텔스 무인기 핵심 기술 개발

스텔스(Stealth) 무인기 제작에 필요한 핵심 기술 4가지가 국내 기술로 개발됐다. 국방과학연구소(ADD)는 9월28일 “국내 최초로 비행체용 전파흡수 구조 기술을 비롯해 레이돔 기술, 안테나 내장 일체형 구조, 경량 전파흡수 도료 등 무인기용 저피탐 비행체에 적용 가능한 핵심 기술 4종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비행체용 전파흡수 구조 기술은 무인기 외부에서 발사한 레이더 신호를 기체구조로 흡수해 비행체의 레이더 반사 단면적(RCS)을 줄이는 기술이다.

레이돔(Radome) 기술은 주파수에 따라 선택적으로 전자파 신호를 투과하거나 차폐시킬 수 있어 비행체에 장착된 안테나가 적 레이더 신호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또 안테나 내장 일체형 구조 기술은 안테나를 기체 구조와 통합해 기체 표면을 매끄럽게 형성할 수 있게 함으로써 비행 때 발생하는 항력과 RCS를 감소시킨다. 경량 전파흡수 도료 기술은 항공기 외피에 코팅된 기능성 도료가 기체 구조에 의해 반사되는 레이더 신호를 줄이는 기술이다.//

예비군 홈페이지·모바일 앱 ‘간편 인증’ 접속

국방부가 8월17일 예비군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예비군 홈페이지(www.yebigun1.mil.kr)와 모바일 앱(App)에 간편 인증 서비스를 운용한다고 밝혔다.

예비군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는 예비군이 훈련과 관련된 대부분의 업무를 해결할 수 있다. 특히 본인 훈련정보 확인, 훈련신청(전국 단위/휴일), 훈련 연기·보류 신청도 가능하다. 기존에 예비군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 로그인하기 위해서는 (구)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인증, 디지털 원패스, 아이핀 등 4가지 방법만 가능했다. 특히 휴대전화 인증 방식으로 접속할 때 문자이

용료와 통신료 등이 발생해 연간 2억 원 내외의 국방부 예산이 필요했다. 그러나 간편 인증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카카오톡·삼성 패스 등을 활용해 보다 빠르고 쉽게 접속이 가능해진 것은 물론 예산절감 효과도 달성할 수 있게 됐다.

간편 인증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예비군들은 로그인 시 카카오톡, 삼성 패스, KB 국민은행, 이동통신사 패스, NHN 페이코 등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플랫폼’과 PIN, 패턴, 지문 등 ‘인증방식’ 중 하나를 선택한 뒤 일정 절차를 거쳐 인증을 받으면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 접속할 수 있다.//